

# “재 사고시 영구 정지해야”

### 전북도·도의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우려... 완벽한 안전 체계 구축 촉구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발표한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의결에 대해 우려와 함께 완벽한 안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1호기 재가동에 대한 원안위 의결을 인정하면서도 “재가동 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호기를 영구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한빛 원전 1호기 사건은 그 사이 이 제어봉 성능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 결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도와 의회특위는 “원자력 발전소 이상 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

에 요청했다.

성경찬 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위위원장은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해 한빛 원전의 완벽한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주제어실 폐쇄회로(CC(TV)) 설치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한빛 원전 1호기는 정기검사 중이던 지난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현상으로 수도 정지되는 사고를 겪었다.

/김진성기자

## 도약기업 투자자 유치로 기업성장 ‘쑥쑥’

### 전북도, IR라운지 사업 추진

전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예탁결제원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년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IR 라운지(이하 IR라운지)의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성장사다리 IR라운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사업성을 토대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멘토링 및 교육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강화, 모의 클라우드펀딩대회 그리고 Investor Relations(IR)을 거쳐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동홍보 캠페인 영상의 제작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탈(VC)과 엔젤투자자를 통한 투자심의회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IR라운지는 업력에 관계없이 2019년 도약기업 지정기업(15개사)과 직전년도(2018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19년도 상반기 매출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전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차년도(2020년)부터는 각 성장사다리 단계별 기업군을 별도 모집 실시할 계획이다.

본 IR라운지 신청기업은 ‘비즈니스투자조합’ 운용사인 전북기술지주회사, ‘전북-에스케이퍼스트트루버벤처펀드’

운용사인 SI투자파트너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6개사를 선발해 공동홍보 캠페인 영상의 제작 및 송출을 통한 기업홍보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된 IR라운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업은 내달 20일까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이메일(sykim@jtpark)로 접수 가능하다.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IR라운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도약기업, 선도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전북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전북도, 피서철 약수터 수질관리 집중 점검

전북도는 피서철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수질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은 시장·군수가 지정 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8.13부터 16일까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여

부, 주변 청소상태, 시설 보수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도는 약수터 물을 채수하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수질 기준이 초과 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약수터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소독 등을 조치한 후 수질 재 검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도는 1년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군에 약수터 폐쇄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교사 대상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실시

전북도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스카우트지도자 중급교육 과정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운영요원 양성 과정으로,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전북도-전북도교육청 협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지난 4월말 기준 도내에는 8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북도 잼버리 참가대원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잼버리 참가 대상인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대 활성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스카우트 중급지도자 교육

을 이수하면 스카우트대를 창설하거나 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대 활성화 및 학교내 잼버리 불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도자 양성 과정에는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이하 전북연맹) 조정식 사무처장 등 20명의 스카우트 전문가들이 스카우트 방식의 아형실습, 스카우트 예법과 역사, 국제 활동과 잼버리 유지 및 개최에 대한 이해 등 스카우트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 진행을 맡았다.

/김진성 기자

## 환영 스피치, 긴장해소, 면접, 웃음치료 모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주, 아반으로 학습합니다.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지적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 용병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린, 단체 특강교수
- KBS TV, MBC TV, JTV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6스피치커뮤니케이션”, “너를 세운 말의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19학년도 2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 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수아	전주, 원주, 김제, 진안, 무주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 스피치 최고지도사 - 스피치&긴장해소수아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초+고급) 이강	정읍, 고창
전북대 익산캠퍼스(평생)	스피치 기법&긴장해소수아	익산, 김제
남원스피치 평생카데미	스피치 기법과 리더십(초, 스피치 최고지도사)	남원, 순창, 장수, 구례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기법과리더십(초, 스피치&긴장해소수아, 최고지도사) 웃음치료(주)	전주, 원주, 진안,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고급력 스피치기법(초, 스피치 긴장해소수아)	전주, 임실, 원주
한국 스피치, 면접 아카데미	주말반, 개인지도, 면접이론, 실기과정(취업)	전북, 전남, 충남지역

상담전화: 063-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1차 마감: 8월 21일까지입니다.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하트(심정지), 브레인(뇌졸중), 트라우마(외상) 세이버 수여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재운 전북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 “모두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어요”

### 전북도,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개최 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전북도 첫 배출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3일 오전 11시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는 수상자와 가족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 22명에게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3일 오전 11시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한 일반인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는 수상자와 가족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등 22명에게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치와 중증외상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환자의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한 구급대원을 트라우마 세이버로 지정했다.

트라우마 세이버 1호로 선정된 소방관 고영아씨는 “전북 지역 최초 트라우마 세이버 1호가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하며 전북 구급대원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앞으로도 구급대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널리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소방관으로 임용된 박세하씨는 “신규임용 실습중 선배님들께 배운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도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전라북도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트라우마 세이버의 첫 사례로는 지난해 5월, 차 대 차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임모씨(43)가 혈압이 낮고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등 복강 내 장기파열이 의심되어 수액처

를 수여했다.

수상자는 소방공무원 17명, 일반인 5명을 포함한 22명이 수여받았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는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이송하여 후유증을 크게 줄인 브레인 세이버와 중증외상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가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이번 수여식 행사에는 가정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아버지의 생명을

한편 하트세이버는 심정지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시키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과 도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병원도착 전 환자가 심정도 및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에 도착 후 72시간 생존해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지역복지정책 평가 ‘대상’ 수상 쾌거

전북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매년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사회보장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2017~2018년 2년 연속 최우수상

에 이어 올해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지역 복지 재정인 고령화, 빈곤, 도농 복지기반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37기 우수 지역사업이 높이 평가됐다.

실제 지역특화형 자활생산물 유통매장 운영과 지역자활 공동브랜드인 ‘희

망이온’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자활 생산물 판로개척에 노력했다.

이번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결과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과 성실한 이행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